

## 영광군수 재선거 주목... 민주·혁신당 '호남 쟁탈전'

지방선거·대선주자 구도에 영향 이재명,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 조국, '월세살이' 바닥 표심 다져 양당 지도부 총출동해 당력 집중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한판 승부에 나서면서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호남지역 재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2026년 지방선거의 판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재선거가 호남 정치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10·16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영광과 곡성 등 2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전남지역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양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직접 현장을 챙기면서 선거판이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2년후 치러질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주자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양 당간 사활을 건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당 지도부가 영광 재선거에 올인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 대표의 호남 참모격인 영광 출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까지 호남지원단장으로 영광 재선거 지원에 가세하는 등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장세일, 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김기열 후보 등 총 5명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예비후보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국민의힘 최봉의, 민주당 조상래, 혁신당 박용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수 선거를 놓고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과 혁신당 간 경쟁구도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과 5선 관록의 박지원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섰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등도 지난 추석 연휴기간 현장을 찾은 등 선거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이개호 의원 사무소에서 '장세일 후보 원팀 결의회'를 갖고 공식 지원에 나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광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은 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기로 하는 등 당 지도부 차원의 재선거 사활 걸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혁신당 역시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부터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를 통해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바닥 표심을 다져오고 있다.

조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세 차례나 영광을 찾는 등 이번 10·16 재선거를 통한 지지율 반등으로 비례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총선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혁신당으로선 이번 재선거가 당의 존재감 및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 3면에 계속**

▶ 관련기사 3면 오지현·정성현 기자



전남지역에 폭우가 내린 22일 영암 학산면의 한 식당주인이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재도구 등을 옮기며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현기 기자

## 광주·전남 400mm 역대급 물폭탄에 '초토화'

실종됐던 80대 숨진 채 발견 19억원 재산피해 잠정 집계

주말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장흥에서 1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여수 401.5mm, 장흥 339.3mm, 순천 331.5mm, 강진 313.9mm 등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지역 내 1096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오전 11시35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저수지에서 전남 실종됐던 A(8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에 걸린 아내와 단 둘이 살던 A씨는 많은 비가 내리자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는 아내를 마

중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불어난 수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밭을 헛디뎠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해남 문내면과 황산면 지역에서는 마을이 침수돼 성인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올랐다. 소방대원들은 마을 주민들을 직접 등 뒤에 업고 나르며 주민들을 구조했고 배수작업까지 진행했다. 문내면에서는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다.

여수시 소라면과 낙포동에서도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구조와 배수작업이 이뤄졌다.

같은날 장흥 연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광양시 진월면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도로가 통제됐다.

화순에서는 캠핑장 옆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야영객 6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완도 신지에서는 전신주 변압기가 낙뢰로 파손됐고 여수에서는 여객선 터미널 천장 슬레이트와 유리가 부서졌다.

이번 비로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보성 716ha, 해남 95ha, 영암 80ha, 나주 73ha 순천 8.6ha 등 1030ha에서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완도(2ha)에서는 배추 모종이 유실됐고, 순천(0.3ha)에서도 열무와 갓 등 농작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장흥에서는 농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양곡 400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19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전남도는 물이 더 빠진 뒤 피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조사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관련기사 5면 민현기 기자**

2024

'광주천에서 생태힐링 클린워킹해요!'

##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 대회

일시: 2024년 10월12일(토) 오전 9시

장소: 광주시 북구 두물머리 둔치 (천변우로)

클린워킹 코스:

- A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광천1교 ↔ 발산교 ↔ 양동복개상가 ↔ 광주교(상류반환점)
- B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제2광천교 ↔ 광암교 ↔ 동천교 ↔ 유촌교 ↔ 상무교(하류반환점)

참가 신청: 2024년 9월 19일(목)~10월 8일(화)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참가자 기념품 제공 및 학생 자원봉사 활동(4시간) 인정

참가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주최/주관: 全南日報

후원: 영광부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BLACKYAK

